



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

〈보도 주요내용〉

3.13.(목) 지지통신은 「일중한, 이달 말 경제통상장관회의 조율, 성사되면 5년만」 에서 3월 하순 서울에서 5년만에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, 경제·통상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박현종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섭 (044-203-5677)